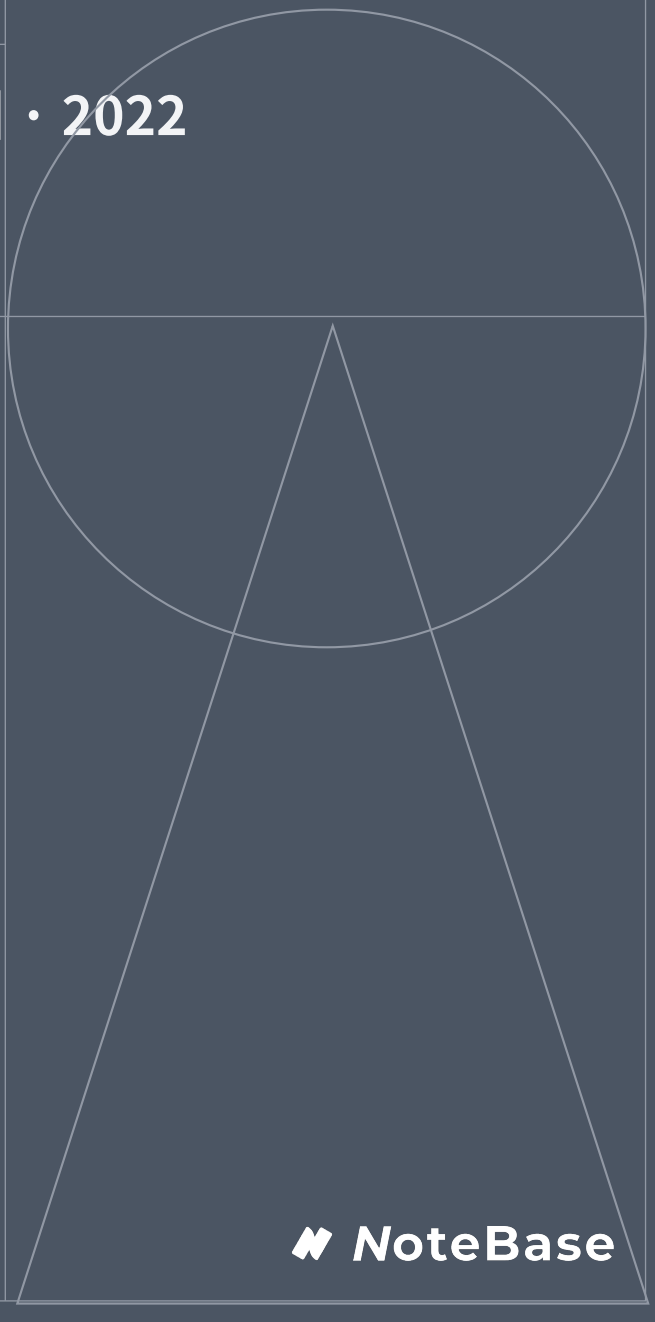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2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2

문 1.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은 것은?

① 우리 집은 일 년에 두 번씩 김치를 담궜다.
② 새로운 회사에서 희한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③ 우리는 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④ 세탁소에서 양복바지의 해어진 부분에 짜집기를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용언의 활용형, '율/률'의 선택, 자주 혼동하는 단어의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 표기는 단어의 기본형과 활용 원리, 한글 맞춤법에 정해진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률'은 앞말이 모음이나 'ㄴ' 받침으로 끝날 때만 '율'로 적고, 그 밖의 받침 뒤에서는 '률'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담궜다'가 틀린 표기이다. '담그다'의 어간 '담그-'에 '-었다'가 결합하면 '—'가 탈락하여 '담갔다'가 된다. 따라서 '김치를 담갔다'로 고친다.
② O — '희한하다'는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라는 뜻의 표준어이므로 '희한한 소문'의 표기가 옳다.
③ X — '발생율'이 틀린 표기이다. '발생'은 'ㅇ' 받침으로 끝나므로 '율'이 아니라 '률'을 붙인다. 따라서 '범죄 발생률'로 고친다.
④ X — '짜집기'가 틀린 표기이다. 옷감의 찢어진 곳을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깁는 일은 '짜깁기'라고 한다. 따라서 '해어진 부분에 짜깁기를 하였다'로 고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희한한'을 발음이나 익숙한 인상에 따라 '희안한'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 또한 ③은 '비율'처럼 익숙한 '율'을 그대로 붙이면 안 되고, 바로 앞말의 끝소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활용형은 먼저 기본형을 찾고, ‘율/률’은 앞말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는지와 그 받침이 ‘ㄴ’인지 확인한다. 고유한 표준어는 비슷하게 들리는 형태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형태인 ‘희한하다’, ‘짜깁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담그다→담갔다, 희한하다, 모음·ㄴ 뒤에는 율/그 밖의 받침 뒤에는 률, 짜깁기이다.

NoteBase

문 2. ㉠, ㉡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우리 국어의 합성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란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합성어를 의미하며,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되는 합성어를 의미한다.

	㉠	㉡
①	굶주리다	곧잘
②	뛰놀다	덮밥
③	큰집	굳세다
④	힘들다	여름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합성어를 이루는 두 요소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사적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게 결합한 합성어이다. 관형형 어미가 드러난 '큰집'이나 명사끼리 결합한 '여름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통사적 합성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결합한 합성어이다.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어미나 관형형 어미 없이 다른 용언 또는 명사와 바로 결합한 '굳세다', '덮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핵심 구별은 앞말이 용언일 때 필요한 어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구성 요소의 배열이 일반적인 구 구성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굶주리다’는 ‘굶-’과 ‘주리다’가 연결 어미 없이 바로 결합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곧잘’은 부사 ‘곧’과 부사 ‘잘’이 일반적인 부사 결합 방식으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바르게 고치면 ㄱ은 ‘곧잘’, ㄴ은 ‘굶주리다’이다.
② X — ‘뛰놀다’는 용언 어간 ‘뛰-’가 연결 어미 없이 ‘놀다’와 바로 결합하고, ‘덮밥’도 용언 어간 ‘덮-’이 관형형 어미 없이 명사 ‘밥’과 바로 결합한다. 둘 다 비통사적 합성어이므로 ㄱ의 ‘뛰놀다’가 틀렸다. 바르게 고치면 ‘뛰놀다’와 ‘덮밥’은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O — ‘큰집’은 형용사 ‘크다’의 관형형 ‘큰’이 명사 ‘집’을 꾸미는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굳세다’는 용언 어간 ‘굳-’이 ‘세다’와 바로 결합한 형태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X — ‘힘들다’는 ‘힘이 들다’와 같은 주어·서술어 구성이 합성어가 된 것이고, ‘여름밤’은 명사 ‘여름’과 명사 ‘밤’이 결합한 것이므로 둘 다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ㄴ의 ‘여름밤’이 틀렸다. 바르게 고치면 ‘힘들다’와 ‘여름밤’은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포인트

단어의 뜻이 자연스러운지만 보고 통사성을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②의 ‘뛰놀다’와 ‘덮밥’은 품사는 다르지만, 앞의 용언 어간 뒤에 필요한 어미가 생략된 채 바로 결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④의 ‘여름밤’은 명사끼리의 일반적인 결합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합성어를 원래의 구나 문장으로 풀어 본다. 일반적인 배열과 어미 형태가 유지되면 통사적 합성어이고, 용언 어간이 필요한 연결 어미나 관형형 어미 없이 뒤 요소에 바로 붙으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암기 포인트

‘큰 집’처럼 문장에서도 가능한 결합은 통사적, ‘굳-+세다’처럼 어간이 바로 붙는 결합은 비통사적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생님은 아이의 소질을 계발(啓發)하였다.
② 그 장소에는 그가 말한 물건이 실재(實在)하였다.
③ 상사는 부하 직원의 휴가 서류를 결재(決裁)하였다.
④ 새 기계를 사용하여 서울 공장의 생산량을 재고(再考)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자의 뜻을 바탕으로 문맥에 맞는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발(啓發)은 사람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깨우쳐 발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실재(實在)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고, 결재(決裁)는 상급자가 제출된 안건이나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뜻이다. 재고(再考)는 어떤 일을 다시 생각한다는 뜻인 반면, 제고(提高)는 수준이나 정도를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아이의 소질을 개발하였다'는 아이가 지닌 소질을 깨우쳐 발전하게 하였다는 뜻이므로 개발(啓發)의 쓰임이 적절하다.
② O — '물건이 실재하였다'는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뜻이므로 실재(實在)의 쓰임이 적절하다.
③ O — 상사가 부하 직원이 제출한 휴가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였다는 뜻이므로 결재(決裁)의 쓰임이 적절하다.
④ X — 생산량을 높였다는 문맥에서 '재고(再考)'는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생산량을 재고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생산량을 제고(提高)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재고'와 '제고'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한자와 뜻이 다르다. 생산량처럼 수준이나 정도를 높이는 대상에는 '제고'를 쓰고, 계획이나 결정처럼 다시 생각할 대상에는 '재고'를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의 한자 뜻을 문장에 대입한다. '다시 생각하다'이면 재고(再考), '끌어올리다'이면 제고(提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고(再考)는 다시 생각함, 제고(提高)는 높이 끌어올림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문장은?

>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 표현법을 사동이라 하고, 사동이 표현된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② 철호가 몸짓으로 나를 웃겼다.
③ 영애가 민수를 기쁘게 하였다.
④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문과,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입는 피동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문: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문장이다.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피동문: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당하거나 입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구별 기준: '누가 남에게 하게 했는가'이면 사동이고, '누가 남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가'이면 피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에서 도둑은 경찰의 잡는 행동을 당한다. '잡혔다'는 '잡다'의 피동 표현이므로 이 문장은 사동문이 아니라 피동문이다. 올바르게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피동문이다'라고 판단한다.

② O
'철호가 몸짓으로 나를 웃겼다'에서 철호가 나로 하여금 웃게 한다. '웃겼다'는 '웃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 표현이다.

③ O
'영애가 민수를 기쁘게 하였다'에서 영애가 민수를 기쁜 상태가 되게 한다. '-게 하다'를 사용한 통사적 사동문이다.

④ O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에서 어머니가 아이로 하여금 새 옷을 입게 한다. '입혔다'는 '입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사동 표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잡혔다'에 들어 있는 '-히-'를 사동 접미사로 오인하기 쉽다. 같은 형태의 접미사가 사동과 피동에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형태만 보지 않고, 도둑이 행동을 시키는지 경찰의 행동을 당하는지 문장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어와 행동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이나 상태를 유발하면 사동문이고, 주어가 다른 대상의 행동을 당하면 피동문이다. 접미사의 모양이 같을 때에는 반드시 문장 전체의 의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남에게 하게 하면 사동, 남에게 당하면 피동이다.

NoteBase

문 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댁(媤宅)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렸다.
② 여행을 가려면 부모님의 승락(承諾)이 있어야 하였다.
③ 아버지가 동생의 철없는 행동을 듣고는 분노(忿怒)하였다.
④ 그는 사건의 문제점을 찾는 데 통찰력(洞察力)을 발휘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실제 표준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한자음을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고 국어에서 굳어진 표준어 형태로 적어야 한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각 한자의 음만 따로 보고 표기를 추정하면 틀릴 수 있다. 특히 承諾은 '승락'이 아니라 '승낙'으로 굳어진 말이며, 媤宅은 '시댁', 忿怒는 '분노', 洞察力은 '통찰력'으로 적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시댁(媤宅)'은 남편의 집이나 남편 쪽 집안을 뜻하는 표준어이므로 표기가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승락(承諾)'이다. 남의 요청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은 '승낙'으로 적으므로, '부모님의 승낙이 있어야 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성이 나서 마음이 몹시 언짢은 상태는 '분노(忿怒)'로 적으므로 표기가 옳다.
④ O —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통찰력(洞察力)'으로 적으므로 표기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승락'은 '허락'의 '락'에 이끌려 잘못 쓰기 쉽다. 같은 諾이 들어가더라도 '허락'과 달리 承諾의 표준 표기는 '승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어를 문장 속에서 자연스러운 표준어 형태로 바꾸어 본다. '승락'이 보이면 '승낙'으로 바로잡고, 비슷한 한자어의 표기를 기계적으로 유추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허락은 '락', 승낙은 '낙'이다.

NoteBase

문 6.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손님이 상인에게 흥정을 부쳤다.
② 여자 친구와 우산을 함께 받치고 걸었다.
③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이동하였다.
④ 동생이 행인과 싸움을 벌여서 일이 커지고 말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와 소리가 비슷한 '부치다/붙이다', '받치다', '부딪히다', '벌이다'의 뜻과 문맥에 맞는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붙이다'는 서로 닿게 하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말을 붙이는 뜻으로 쓰이므로 '흥정을 붙이다'라고 한다. '부치다'는 편지나 물건을 보내거나, 일을 남에게 맡기거나, 안건을 회의에 내놓는 등의 뜻으로 쓰인다. '받치다'는 물건이 쓰러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아래에서 지탱한다는 뜻이고, '부딪히다'는 사람이나 물체가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친다는 뜻으로, '싸움을 벌이다'처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흥정을 부쳤다'의 '부쳤다'가 틀린 표현이다. 값을 흥정하려고 말을 붙였다는 뜻이므로 '손님이 상인에게 흥정을 붙였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받치다'는 물건을 아래에서 지탱한다는 뜻이다. 우산을 머리 위에 들고 지탱하여 함께 썼다는 문맥의 '우산을 함께 받치고'는 알맞다.
③ O — '부딪히다'는 사람이나 물체가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다. 옆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동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벌이다'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펼친다는 뜻이다. '싸움을 벌이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이며, '벌이다'가 '벌여서'로 활용된 형태도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부쳤다'는 '붙였다'와 발음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흥정'은 상대에게 말을 붙여 시작하는 것이므로 '붙이다'를 써야 한다. 또한 ④의 '벌여서'는 '벌이다'가 활용된 올바른 형태이므로 이를 잘못된 표현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낱말을 기본형으로 되돌린 뒤 문맥의 뜻과 연결한다. 서로 닿게 하거나 말을 거는 뜻이면 '붙이다', 보내거나 맡기는 뜻이면 '부치다', 아래에서 지탱하면 '받치다', 충돌하면 '부딪히다', 일을 시작하여 펼치면 '벌이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흥정은 붙이고, 편지는 부치며, 우산은 받치고, 사람과는 부딪히며, 싸움은 벌인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詩文)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의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긷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속되고 촌스럽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녕 공부하는 선비들의 이른바 시부(詩賦)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 – 김만중, 『서포만필』에서 –

① 나무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② 민간의 노래가 속되고 촌스럽다고 보는 견해를 부정하고 있다.
③ 아낙네들의 노래는 앵무새의 노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공부하는 선비의 시부가 민간의 노래보다 참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나타난 김만중의 시가관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김만중은 남의 언어를 흉내 내는 사부보다 우리말로 진실한 정서를 드러내는 민간의 노래를 높이 평가한다.

핵심 개념

민간의 노래: 나무하는 아이들이나 물 긷는 아낙네들이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로, 표현이 속되고 촌스러울 수 있으나 삶의 진실한 정서가 담겨 있다.
선비의 사부: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 짓는 글로,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는 것처럼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판단 기준은 표현의 세련됨이 아니라 우리말에 바탕을 둔 진실성과 주체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민간의 노래가 비록 속되고 촌스럽더라도 '참과 거짓'을 기준으로 보면 선비의 사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나무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속되고 촌스럽다고 보는 견해를 부정'한다는 부분이다. 글은 민간의 노래가 속되고 촌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진실성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올바르게는 '민간의 노래가 속되고 촌스러울 수 있어도 진실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아낙네들의 노래는 앵무새의 노래와 유사하다'는 부분이다. 앵무새의 비유는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 표현하는 선비들의 사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르게는 '선비들의 사부가 앵무새의 흉내와 유사하다고 본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선비의 사부가 민간의 노래보다 참되다'는 부분이다. 글은 오히려 민간의 노래에는 진실성이 있고, 남의 언어를 흉내 낸 사부에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민간의 노래가 선비의 사부보다 참되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속되고 촌스럽다'는 표현만 보고 글쓴이가 민간의 노래를 낮게 평가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겉모습에 관한 양보이고, 실제 평가의 기준은 뒤에 제시된 '참과 거짓'이다. 또한 앵무새의 비유 대상은 민간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모방하는 선비의 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록 ~하더라도', '~지만'과 같은 양보 표현 뒤에서 글쓴이의 최종 평가를 찾는다. 이 글에서는 '속되고 촌스럽다'보다 '참과 거짓'의 대비가 중심이므로, 진실한 우리말 노래를 긍정하고 외국어를 모방한 사부를 비판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민간 노래는 우리말의 참됨, 선비의 사부는 남의 말의 모방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선생님, 이번 축제 기간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를 홍보하고 싶은데, 포스터에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선생님께 여쭤 보고 싶어서요. 저에게 지금 시간 좀 내 주세요.

교사: 그래? 너희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선 뭘 하는지 궁금하구나.

학생: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직접 만든 스마트폰 앱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게임,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앱들이 있어요.

교사: 와! 재미있겠는걸. 그럼 동아리 부스 홍보물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싶니?

학생: 어떤 체험용 앱이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포스터로 우리가 만든 앱이 뛰어나다는 걸 잘 전달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교사: 맞아. 네 말대로 스마트폰과 포스터는 전달 방식이 다르니 쉽지 않지. 그럼 우선 앱 자체에 대한 소개는 포스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대신 홍보 포스터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내용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학생: 그렇다면 현재 동아리에 관련 대회 입상자가 많다는 것을 홍보해야겠어요. 앱 소개는 앱 실행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두고 검색 주소를 안내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① 교사는 학생의 말에 대한 공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학생은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③ 학생은 교사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④ 교사는 제안하기를 통해 학생이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대화 참여자의 발화 내용과 표현 방식을 근거로 공감하기, 구체적으로 답하기, 질문·요청하기, 제안하기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말하기 방식은 문장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발화의 내용, 목적, 상대의 반응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공감하기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안하기는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교사는 학생의 걱정을 들은 뒤 '맞아. 네 말대로 스마트폰과 포스터는 전달 방식이 다르니 쉽지 않지.'라고 말한다. 학생의 어려움에 동의하고 그 걱정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므로 공감 표현에 해당한다.
② O — 교사가 홍보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묻자 학생은 체험용 앱 소개와 동아리 가입 시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질문의 내용에 맞게 답하고 있다.
③ X — 학생의 목적은 교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에 넣을 내용을 조언받아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저에게 지금 시간 좀 내 주세요.'처럼 요청하는 표현도 사용하므로 대화 전체를 질문 형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틀린 표현인 '교사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포스터 내용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요청하고, 교사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교사는 앱 소개는 실행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검색 주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포스터에는 대회 입상자가 많다는 내용을 담아 보라고 제안한다. 학생이 홍보 내용을 나누어 구성하는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질문 형식'이라는 말만 보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실제로는 조언을 얻기 위해 시간을 요청하고 고민을 설명한다. 발화 형식과 발화 목적을 근거 없이 연결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가 제시한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왜 말했는가'를 대화의 실제 표현과 하나씩 대조한다. 표현 방식이 일부 맞더라도 선지가 제시한 발화 목적까지 대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암기 포인트

말하기 방식은 표현의 형태와 발화의 목적을 함께 확인한다. 질문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의 부담을 덜려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 동물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 가령 늑대 사회에서는 지위가 높아야만 꼬리를 세울 수 있다. 지위가 낮은 늑대는 항상 꼬리를 감아 말고 있어야 한다. 만약 힘이 센 늑대에게 힘이 약한 늑대가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있으면 힘이 센 늑대는 싸우자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분류
② 서사
③ 예시
④ 정의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주된 서술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시는 일반적인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동물들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 뒤, 늑대 사회에서 꼬리의 높이로 지위와 싸움의 신호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방식이고, 서사는 사건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이며, 정의는 대상의 본질적 뜻을 밝혀 설명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분류는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글은 의사 전달 수단을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지 않았다. '분류'가 아니라 '늑대 사회의 사례를 통한 예시'라고 고쳐야 한다.
② X — 서사는 인물과 사건의 전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늑대의 꼬리 행동을 사례로 설명한다. '서사'가 아니라 '예시'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 동물의 의사 전달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늑대가 꼬리의 높이로 지위와 싸움의 신호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므로 예시가 주된 서술 방식이다.
④ X —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본질적 뜻을 명확히 밝히는 방식이다. 이 글은 '의사 전달'의 뜻을 규정하지 않고 늑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정의'가 아니라 '예시'라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늑대 사회의 지위와 꼬리 행동이 차례로 설명된다는 이유만으로 '서사'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사건의 시간적 전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설명 뒤에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으므로 예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적인 진술 뒤에 특정 대상이나 실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예시로 판단한다. 대상을 기준별로 나누면 분류,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전개하면 서사, 개념의 뜻을 규정하면 정의이다.

암기 포인트

일반 내용 뒤 구체적 사례는 예시, 기준에 따른 나눔은 분류, 시간에 따른 사건 전개는 서사, 뜻을 밝히는 것은 정의이다.

NoteBase

문 10.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디어의 영향 아래에 ㉠ 놓여진 대중은 자신의 신념과 사고 활동의 번거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평가와 판단을 ㉡ 미디어에 맡긴다. 자신의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 그래서 그들은 세상 밖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 못할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① ㉠은 이중피동이 사용되었으므로 '놓인'으로 고쳐 쓴다.
② ㉡은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미디어를 배격한다'로 고쳐 쓴다.
③ ㉢은 접속부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그러나'로 고쳐 쓴다.
④ ㉣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못할 뿐만'으로 고쳐 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동 표현, 문맥에 맞는 어휘, 문장 간 접속 관계,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에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이중 피동은 피동의 뜻이 겹친 표현이므로 불필요한 피동 요소를 덜어 낸다. 어휘는 앞뒤 문맥이 나타내는 의미에 맞아야 하며, 접속 부사는 두 문장의 논리 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뿐'이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의 뜻으로 쓰이면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놓여진'은 '놓이다'에 피동의 뜻을 더하는 '-어지다'가 겹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놓여진'은 '놓인'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자신의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맡긴다'는 평가와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배격한다'는 배척하여 물리친다는 뜻이므로 이 문맥과 맞지 않는다. 틀린 고쳐쓰기인 '미디어를 배격한다'가 아니라 원래 표현인 '미디어에 맡긴다'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③ O — 앞에서는 판단을 미디어에 맡기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진실을 볼 기회와 인생의 깊이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두 내용은 대조 관계이므로 원인의 접속 부사 '그래서'를 대조의 접속 부사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못할 뿐만 아니라'의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못할뿐만'을 '못할 뿐만'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맡긴다'를 막연히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바꾸기 쉽다. 그러나 고쳐쓰기는 문장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를 유지하면서 표현과 논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제시문에서 '미디어에 맡긴다'는 바로 비판하려는 현상을 정확히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쳐쓰기 선택지는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앞뒤 문맥과 의미가 맞는가', '문장 사이의 논리 관계가 맞는가', '띄어쓰기 원칙에 맞는가'를 차례로 확인한다. 원문의 의미가 이미 자연스럽다면 단지 더 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암기 포인트

'놓여진→놓인'은 이중 피동, '그래서→그러나'는 인과에서 대조로, '못할뿐→못할 뿐'은 의존 명사 띄어쓰기이다. 문맥에 맞는 '맡긴다'는 고치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경 10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고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 반면 지금의 도시민들은 어디를 가든 내가 모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일상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는 '군중 속의 자유'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 갔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인들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다. 그게 우리의 도시 생활이다.

①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더 넓은 반경의 공간을 경험하고 있다.
②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살던 곳을 벗어나 해외여행을 떠나야 한다.
③ 현대인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이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④ 도시에 살게 되면서 익명성에 따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거 농경 사회와 현대 도시 생활을 대조한 글에서 반복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심 내용은 글 전체에서 반복·강조되는 생각이다. 이 글은 서로 잘 아는 농경 사회의 감시와 간섭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익명성을 누리는 도시 생활의 자유와 대조한다. 따라서 핵심은 도시인이 익명성 덕분에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과거보다 현대인의 생활 공간이 넓어졌다는 내용은 글의 핵심이 아니다. 글에서 10킬로미터라는 표현은 농경 사회의 좁은 생활권과 긴밀한 인간관계를 보여 주기 위한 배경이다. 올바르게는 현대 도시인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익명성과 비간섭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야 한다.
② X —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살던 곳을 떠나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해외여행은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일상적인 도시 생활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올바르게는 도시인은 일상에서도 군중 속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야 한다.
③ X — 현대인이 주로 아파트에 살며 이웃을 잘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중심 내용은 아니다. 아파트는 문을 잠그고 나가도 주변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설명하는 사례이다. 올바르게는 현대 도시 생활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준다고 해야 한다.
④ O — 도시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주변에 일일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글이 강조한 '군중 속의 자유', 곧 익명성에 따른 자유를 정확히 요약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넓은 반경', ②의 '해외여행', ③의 '아파트'는 글에 등장하거나 글에서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모두 중심 생각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나 사례에 가깝다. 일부 소재가 글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중심 내용으로 고르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내용 문제에서는 여러 문단과 사례를 하나로 묶는 공통 의미를 찾는다. 이 글의 '낯선 사람들', '군중 속의 자유',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연결하면 '도시의 익명성이 주는 자유'가 남는다.

암기 포인트

도시의 익명성은 군중 속의 외로움인 동시에 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자유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 모래 가른 물가에
> 기랑(耆郞)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 낭(郞)이 지니시던
>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
> – 충담사, 「찬기파랑가」 –

① 기파랑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② 10구체 향가로서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구체적인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④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감정을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찬기파랑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10구체 향가의 구성, 자연물의 상징, 낙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의 중심 정서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에 대한 추모와 예찬이다. 달과 잣나무 같은 자연물은 기파랑의 맑고 높은 정신을 드러내며, 마지막 두 구의 감탄사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작품은 기파랑의 부재를 계기로 화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화자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그의 고결한 인품을 추모하고 예찬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작품은 모두 10구이며, 내용상 앞의 네 구, 가운데 네 구, 감탄사 '아아'로 시작하는 마지막 두 구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는 10구체 향가의 구성에 해당한다.
③ O - '달'과 '잣나무' 등의 자연물은 기파랑의 맑고 고결하며 높은 인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④ O - 마지막 부분의 '아아'는 낙구에 쓰인 감탄사로, 기파랑의 높은 인품을 예찬하는 감정을 집약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오답 포인트

첫머리의 '흐느끼며'와 기파랑의 부재만 보고 이를 화자의 신세 한탄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시선은 화자 자신이 아니라 기파랑의 모습과 마음, 높은 인품을 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슬픔이 제시되면 그 슬픔의 대상과 작품의 중심 대상을 함께 확인한다.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 신세 한탄이지만, 특정 인물의 모습과 덕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면 그 인물에 대한 추모와 예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달과 잣나무로 형상화하고, 낙구의 '아아'로 예찬의 정서를 집약한 10구체 향가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때 조정에 있던 무장 중에서 신립과 이일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경상우병사 조대곤은 늙고 용맹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장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나(류성룡)는 경연 자리에서 조대곤 대신 이일에게 그 임무를 맡길 것을 아뢰었는데, 병조판서 홍여순은

"명성 있는 장군은 당연히 도읍에 있어야 하기에 이일을 파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다시 아뢰었다.

"무릇 일이란 미리 준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하물며 군대를 다스리고 적을 막는 일은 절대로 급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난리가 나면 결국 이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보내야 한다면 하루라도 일찍 보내서 미리 난리에 대비하게 해야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곳의 장수를 급히 내려 보낸다면, 그는 파견된 지방의 지리에 밝지 못하고 그 지방 병사들이 용맹한지 비겁한지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니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

– 류성룡, 『징비록』에서 –

① 당시 사람들은 조대곤이 장수로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② 홍여순은 도읍 방어를 지방 방어보다 중시하였다.
③ 류성룡은 지방 병사들의 훈련 부족을 지적하였다.
④ 임금은 류성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각 인물의 생각과 태도를 정확히 추론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내용 이해 문제에서는 선지의 평가가 글에 직접 제시되었거나 인물의 발언에서 타당하게 추론되는지를 판단한다. 홍여순은 명성 있는 장군을 도읍에 두어야 한다며 이일의 지방 파견에 반대했으므로, 도읍 방어를 지방 방어보다 우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당시 사람들은 조대곤이 늙고 용맹이 없어 장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틀린 표현은 '장수로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장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이다.
② O — 홍여순은 명성 있는 장군은 도읍에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일을 지방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방 방어보다 도읍 방어를 중시한 태도이다.
③ X — 류성룡은 이일이 파견된 지방의 지리에 밝지 못하고 그 지방 병사들이 용맹한지 비겁한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틀린 표현은 '지방 병사들의 훈련 부족을 지적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이일이 지방의 지리와 병사들의 상태를 알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이다.
④ X — 임금은 류성룡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류성룡의 주장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이다.

오답 포인트

인물의 발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면 오답이 된다. ③은 '병사들의 용맹함과 비겁함을 알 수 없다'를 '훈련이 부족하다'로 바꾸었고, ④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 서술어를 본문의 직접 근거와 대응한다. 인물의 발언과 일치하는지, 본문에 없는 원인·평가·태도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홍여순은 명장 이일의 도읍 잔류를 주장하고, 류성룡은 조기 파견과 현지 정보 부족을 우려하며, 임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우리나라는 독서율이 8.4 %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평균이 20.2 %인 것에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편이다. 독서가 인간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독서 소외인, 즉,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위한 독서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초등 저학년 대상의 책 꾸러미 프로그램과 함께 독서 소외인의 실태를 고려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약 지역의 작은 도서관 설치, 순회 독서활동가의 파견, 점자 및 수화영상 도서 보급, 병영 도서관 확충, 교정 시설에 대한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평균 독서율과 차이가 없다.

②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글 해득을 완전히 숙달하지 못해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에 속하므로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

③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로 인해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

④ 군 장병의 독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에 명시된 수치·대상·사업 내용을 선지와 정확히 대응하여 적절한 진술을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독서 소외인은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글에 직접 제시된 내용인지,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시설 명칭을 바꾸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글에는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8.4%이고 OECD 가입 국가 평균은 20.2%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차이가 없다는 말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해야 한다.
② X — 글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을 뿐, 초등학교 저학년이 한글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 모두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한글 습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독서 소외인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글에서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명시된 독서 소외인은 시각 장애·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④ X — 글에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제시한 곳은 군 장병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교정 시설이다. 올바르게는 교정 시설의 독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초등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초등 저학년은 모두 독서 소외인'이라는 단정으로 바꾸었고, ④는 글의 '교정 시설'을 '군 장병'으로 바꾸었다. 글에 나온 대상과 사업의 연결 관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교체한 선지를 경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치 비교는 실제 대소 관계를 확인하고, 정의 선지는 포함 조건을 그대로 대조하며, 사업 선지는 대상·장소·프로그램의 연결이 본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독서 소외인은 '장애 또는 여러 제약으로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며, 교정 시설에는 독서 치유 프로그램이 연결된다.

NoteBase

문 1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디지털 독자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 도전은 다음과 같은 환경적 특징 때문에 생겨난다.
>
> 디지털은 [(가)]이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정보 창고인 도서관은 '작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쓴 책을 선호한다. 대부분의 인쇄 서적들은 사업 인가를 받은 출판사가 기획하고 발행한다. 오프라인에는 전문가들이 도서를 검토, 평가, 선택하는 일련의 절차가 존재한다.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 정돈된 메시지를 섬세하게 디자인하여 공유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자신이 생산한 것들을 게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출판, 검토, 비평, 선정이라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

① 검증되지 않은 공간
② 몰입할 수 있는 공간
③ 정교한 중간 과정이 있는 공간
④ 전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공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오프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 글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의 차이를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디지털 공간의 성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프라인 정보 공간은 출판사와 전문가의 기획·검토·평가·선별을 거쳐 글이 유통되는 공간이다. 반면 디지털 정보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산물을 곧바로 게시할 수 있어 출판·검토·비평·선정과 같은 중간 검증 과정이 생략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문에서 말하는 디지털의 핵심 성격은 '검증되지 않은 공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자유롭게 드러내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검토·선별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므로 '검증되지 않은 공간'이 지문의 설명을 정확히 요약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문은 이용자의 몰입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중간 검증 과정이 생략되어 검증되지 않은 공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정교한 중간 과정이 있는 공간'이다. 지문은 오히려 디지털 환경에서 출판·검토·비평·선정이라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정교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공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전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공간'이다. 지문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답 포인트

디지털 매체의 일반적 특성만 떠올려 ②를 고르기 쉽지만, 빈칸은 반드시 뒤에 이어지는 오프라인과 디지털의 대비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의 검토·선별 절차가 존재함'과 '중간 과정이 생략됨'의 대조가 ①을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의 반복 설명에서 서로 대조되는 표현을 찾는다. 오프라인에는 검토·평가·선별 절차가 있고 디지털에는 그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디지털은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오프라인은 검토·선별, 디지털은 직접 게시·검증 생략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저희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는 도로 폭이 2미터 6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보행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도로가 더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등·하교할 때 통학로를 지나는 차를 만나면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 저희는 △△구청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물론 저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저희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에 주민들이 주차하실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 통학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다면 저희 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넓어진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동차 사고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잘 활용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입니다.

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와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문제 해결 방안이 최선책임을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건의하는 글에 문제 상황, 해결 주체와 방안, 해결에 따른 이익, 전문가의 증언과 같은 설득 요소가 실제로 드러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의하는 글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하며, 그 방안의 기대 효과를 밝혀 설득력을 높이는 글이다. 전문가의 증언을 활용했다고 보려면 전문가의 발언이나 견해가 글에 직접 제시되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구청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제시하고, 불법 주차 단속 강화와 방과 후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고 있다.

② O - 불법 주차가 사라지면 약 700명의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도 안전하게 보행하며, 자동차 사고와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O - 통학로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고 보행로도 없는 데다 불법 주차로 피할 공간까지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X - 글에는 전문가의 발언이나 견해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증언으로 해결 방안이 최선임을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함으로써'이며, 올바르게는 '불법 주차 단속과 학교 운동장 개방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기대 효과를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글에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증언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전문가의 증언은 아니며, 전문가의 신분과 실제 발언 또는 견해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제시된 설득 방법이 글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근거 표현과 일대일로 대응한다. '전문가의 증언'이라면 전문가가 누구인지와 그 사람의 발언이나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문제 상황은 위험성, 해결 방안은 주체와 행동, 기대 효과는 이익, 전문가의 증언은 전문가의 실제 견해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
>
>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
> – 김수영, 「눈」 –

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유사한 구조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단정과 다짐의 어조로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김수영의 「눈」에서 '눈'과 '기침'이 지닌 상징적 의미, 반복 구조,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을 종합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눈: 순수성과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며, 부정한 현실과 무기력한 삶을 일깨우는 상징이다.
기침: 내면의 불순함과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털어 내고 현실을 비판하려는 행동을 상징한다.
이 시의 단정적이고 반복적인 어조는 절망이나 무력감이 아니라 자기 각성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살아 있는' 눈과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대립한다.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눈을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상태와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② O — 자연물인 '눈'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순수성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자기 각성과 부정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③ O —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마음 놓고'에서 '마음껏 뱉자'로 표현을 강화한다. 이러한 점층적 반복은 각성과 현실 비판의 의지를 강조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현실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이다. 단정적이고 결의에 찬 어조는 눈을 보며 내면의 불순함을 털어 내고 부정한 현실에 맞서려는 각성과 실천 의지를 표현한다. 올바르게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죽음', '고인 가슴의 가래'와 같은 부정적 시어만 보고 화자의 정서를 절망과 무력감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침을 하자', '마음껏 뱉자'라는 능동적 표현과 단정적 어조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을 정화하며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정서를 판단할 때 부정적 시어만 보지 않고 화자의 행동, 종결 표현, 반복의 방향을 함께 확인한다.
명령·청유적 표현이 능동적 행동을 촉구하고 반복이 강해지면 절망이나 무기력보다 각성·저항·실천 의지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살아 있는 눈'은 순수성과 생명력, '기침'은 자기 정화와 현실 비판, 단정적 어조는 현실 극복 의지이다.

NoteBase

문 18. (가)를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대화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공적인 대화에는 일반적으로 '시작–중심–종결'의 3단계 구조가 적용된다.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중심' 단계에서는 대화할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대화할지 등 대화 규칙을 의논하여 정하고, 이후 화제에 대해 대화한다.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나) (복도에서 반 친구를 만난 상황)

학생 1: ㉠ 안녕, 일찍 왔네.
학생 2: 응, 너도 일찍 왔구나.
학생 1: ㉡ 노트 좀 빌려줘. 내가 어제 수업을 못 들었어.
학생 2: 그래? 근데 나 지금 바로 교무실 가 봐야 하는데. 나중에 교실에서 줄게.
학생 1: ㉢ 잠깐만. 어제는 진도 얼마나 나갔니?
학생 2: 조금. 어….
학생 1: 볼 게 많아?
학생 2: 어…, 조금…. 시간 다 돼서 급한데…, 다녀올게.
학생 1: ㉣ 응, 잘 다녀와.

① ㉠: 아침에 만나 처음 대화를 시작하므로 인사를 더욱 다정하게 해야 한다.
② ㉡: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대화할지를 정해야 한다.
③ ㉢: 대화 규칙을 정하기 전에 화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
④ ㉣: 이번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대화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공적인 대화의 '시작-중심-종결' 구조를 실제 대화에 적용하여, 대화 단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사례 정리

학생 1과 학생 2는 인사를 나눈 뒤 노트 대여에 관한 말을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 1은 상대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학생 2는 바로 교무실에 가야 한다고 밝혀 현재 충분히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낸다.

핵심 개념

성공적인 대화는 일반적으로 시작, 중심, 종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시작 단계에서는 인사를 나누고, 중심 단계에서는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와 대화 방법 등을 조율한 뒤 화제에 관해 대화하며,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 인사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적용 기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화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상대의 시간과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대가 급한 상황이라면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대화할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안녕, 일찍 왔네.'라고 인사하여 시작 단계의 기능을 이미 수행한다. 아침에 처음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더 다정하게 인사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틀린 표현 '인사를 더욱 다정하게 해야 한다'는 '현재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면 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 ㉡에서 학생 1은 상대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뒤이어 학생 2가 교무실에 급히 가야 한다고 하므로, 먼저 지금 대화할 수 있는지 묻고 대화를 이어 갈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심 단계의 원리에 맞는다.
③ X — ㉢은 노트 대여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수업의 진도라는 새 화제를 갑자기 꺼낸 말이다. 또한 제시문은 대화 규칙을 정한 뒤 화제에 관해 대화한다고 설명하므로 '대화 규칙을 정하기 전에'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판단은 순서가 반대이다. 틀린 표현은 '대화 규칙을 정한 뒤 필요한 화제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의 '응, 잘 다녀와.'는 상대가 교무실에 간다는 상황에 맞는 마무리 인사이므로 종결 단계에 해당한다. 제시문은 종결 단계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고 했을 뿐, 다음 대화 시간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 '다음 대화 약속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상황에 맞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④의 '다음 대화 약속 시간'이 노트 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제시문에 제시된 종결 단계의 필수 행동은 아니다. 반면 ②는 상대가 실제로 급한 상황이라는 대화 내용과 중심 단계의 상황 조율 원리를 모두 직접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발화가 인사, 상황·방법 조율, 화제 대화, 마무리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그다음 선지의 개선안이 제시문에 제시된 단계의 원리를 직접 따르는지, 제시문에 없는 행동을 임의로 요구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화는 '인사 → 상황과 방법 조율 → 화제 대화 → 마무리'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장기기억에는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이 있다. 서술기억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저장하는 일화기억과 사실이나 정보를 기억하는 의미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비서술기억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운동기술이나 습관 등의 기억이다.
>
> 뇌의 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환군인 치매는 기억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 치매에 걸리면 자신의 일화기억과 의미기억 모두와 단절된다. 또한 이전에 없었던 사실이나 정보를 새롭게 학습하여 기억하는 것도 어렵다. 요리, 금융거래와 같은 일상적 활동과 혼자서 옷 입기와 같은 자기 관리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
> 치매의 약 50 ~ 60 %에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의 광범위한 변성에서 비롯되는 지적 능력 및 성격의 진행성 퇴화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친숙한 장소 근처에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병이 진행될수록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화를 잘 내고 자기 관리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① 최근에 읽은 책 내용에 대한 기억은 서술기억이다.
② 치매에 걸린 사람은 서술기억을 상실하게 된다.
③ 알츠하이머병은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질환이다.
④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더라도 자기 관리 능력이 강화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장기기억의 종류와 치매·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따른 변화를 글의 내용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기억은 의식적으로 떠올려 말할 수 있는 장기기억이며,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저장하는 일화기억과 사실·정보를 저장하는 의미기억으로 나뉜다. 비서술기억은 반복 연습으로 습득한 운동기술이나 습관의 기억이다. 치매는 기억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감소시키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지적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점차 떨어뜨리는 진행성 퇴화 질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최근에 읽은 책의 내용은 사실이나 정보에 관한 기억이므로 의미기억이며, 의미기억은 서술기억에 속한다.
② O — 글은 치매에 걸리면 일화기억과 의미기억 모두와 단절된다고 하므로, 두 기억을 포괄하는 서술기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③ O — 글은 알츠하이머병을 뇌세포의 광범위한 변성에서 비롯되는 지적 능력 및 성격의 진행성 퇴화 질환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적 능력이 퇴화된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기 관리 능력이 강화된다'이다. 글에서는 병이 진행될수록 자기 관리 능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올바른 표현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될수록 자기 관리 능력이 저하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강화된다'는 글의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를 정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일상적 활동과 자기 관리 능력도 완전히 상실한다'는 앞 문장의 내용과도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서술어를 본문의 표현과 대응한다. 본문이 '감소시킨다', '어렵다', '상실한다', '떨어진다'처럼 능력 저하를 반복할 때 이를 '강화된다'로 바꾼 선지는 내용 불일치이다.

암기 포인트

서술기억은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으로 나뉘며,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될수록 지적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은 저하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부분 줄거리] 1930년대 서울, 지주이자 구두쇠인 윤 직원 영감은 손자들이 출세하여 가문을 빛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 유학 중인 손자 종학이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는 전보를 받는다.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걷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너냐아?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더냐? ……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넌 다 지나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허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구 편안허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여, 으응?"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 착착 깎어 죽일 놈! ……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녁을 살리라구 헐걸! 백 년 지녁 살리라구 헐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히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톡톡 팔어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어 가두는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 영각: 소가 길게 우는 소리.
※ 동병: 군사를 일으킴.
※ 가권: 식구.
※ 상성: 본래의 성질을 잃어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됨.

① '윤 직원'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현실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② 서술자는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윤 직원'은 상속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서술자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성격·가치관을 파악하고, 서술자의 경어체가 만드는 풍자적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성격은 대사, 행동, 표정, 내면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이 작품의 서술자는 인물에게 경어체를 사용하지만, 이는 인물을 존중하거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높이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조롱하는 반어적 서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윤 직원 영감은 독립운동가를 '화적패', '부랑당'으로 몰아붙이고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재산과 안위가 보장되는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긴다.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② O —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이 방바닥을 치고 벌떡 일어서며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손자 때문에 자신이 곧 상성할지도 모른다는 그의 생각까지 제시한다. 외양과 행동의 묘사에 내면 심리의 제시가 결합되어 있다.

③ O — 윤 직원 영감은 재산이 있어야 후손이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여기며, 후손이 그 재산을 이어받아 가문을 보전하고 출세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드러난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이다. 서술자의 경어체는 윤 직원 영감을 공손히 대우하는 듯한 말투와 그의 탐욕스럽고 왜곡된 생각을 충돌시켜 인물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올바르게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인물과 심리적 거리를 두고 반어적·풍자적 효과를 내고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경어체를 곧바로 친밀감이나 존중의 표현으로 판단하게 하는 데 있다. 말투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높임의 말투가 인물의 부정적 언행과 결합하여 조롱을 강화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는 말투 자체와 그 말투가 놓인 맥락을 함께 본다. 부정적 인물을 지나치게 높이는 말투가 사용되면 친근함보다 반어, 조롱, 풍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인물에 대한 과장된 경어체는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 두기와 풍자를 만든다.

NoteBase